

소통 이론으로서 Dervin의 의미형성 이론의 비판적 재해석*

A Critical Reinterpretation of Dervin's Sense-Making Theory as Communication Theory

박 성 우 (Seongwoo Park)**

홍 소 람 (Soram H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비판 2: 정보의 개념 |
| II. 의미형성 이론 구축의 배경 | V. 결 론 |
| III. 비판 1: 소통 이론으로서 의미형성 이론 | |

요약: 의미형성 이론은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추구 행위에 상당한 설득력을 부여한다. 이는 개인의 내적 영역, 대면, 조직,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의 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의 정보추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및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은 결과적으로 주체 개별의 인식론적 해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집단의 정보추구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론의 목적은 소통 이론의 관점에서 발신자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신자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수신자 중심의 소통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Dervin은 수신자의 외부의 정보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객체정보의 존재를 용인한다. Dervin은 Popper(1972)의 세계 개념에 근거해 정보 개념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의미형성 이론의 관찰 대상은 세계3(객관적인 사유내용)이 아니라 세계3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세계2(심리적 세계)가 받아들이는 의미형성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ervin의 의미형성 이론은 집단 차원에서의 소통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주제어: 더빈, 의미형성 이론, 소통, 정보추구행위

ABSTRACT: Sense-Making Theory gives persuasive power to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while acknowledging the diversity of subjects. It is being used as a theory and methodology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 seeking in various temporal and spatial contexts related to the communication of individuals' inner realms, face-to-face, organization, and mass communication. However, it is not to be a theory to explai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 group in that it explains the individual epistem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s. Also, the purpose of the theory was to establish a receiver-centered communication theory that constructs sense-making by itself, away from the receiver who unilaterally accepts the sender's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theory. However, Dervin accepted the existence of object information without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ipient's external information and the receiver. Owing to the establishing his concept of information following the Popper(1972)'s world concept, its object of observation is not World III (objective content of thought), but the process of sense making in which World II (psychological world) receives information generated in World III. In this context, Dervin's theory is not to explain the communication behavior at a group level.

KEYWORDS: Brenda Dervin, Sense-Making Theory,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이 연구는 2022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culturepark@gwangju.ac.kr / ISNI 0000 0004 6322 5864) (제1저자)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gardenofstone@naver.com / ISNI 0000 0004 9178 2852)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2년 8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8월 31일 • 게재확정: 2022년 9월 1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193-214,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193>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Dervin의 의미형성(Sense-Making) 이론(이하 의미형성 이론)은 다른 정보추구 이론과 다른 방법론(methodology)(Dervin, 2005, 25; Wilson, 1999, 253) 혹은 패러다임(paradigm)(Case, 2002, 155)이라고 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정보추구를 설명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메타이론(metatheory)으로 설명되기도 한다(Bates, 2005, 11).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의미형성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광범위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의미형성 이론이 정보추구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왔기 때문이다(Tidline, 2005).

Dervin은 정보가 고정적인 실재를 객관적으로 진술한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신 인간이 불편함이나 격차 등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관적 의미형성 과정으로 본다(Case, 2002, 76-77). 이 점에서 의미형성 이론은 특정한 정보원과 인간의 관계라는 한정적 상황만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생활 전체의 영역을 다룬다(Tidline, 2005, 114). 정보추구는 삶에서 봉착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응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의미형성 이론이 다루는 영역은 종전의 정보추구 이론이 설명하기 위해 시도했던 영역보다 훨씬 광범위하다(Case, 2002, 81-83). Dervin은 의미형성 이론이 개인의 내적 영역부터 대면, 조직,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Dervin, 1992, 277-278). 그래서 Dervin은 자신의 이론을 정보추구 이론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소통 이론의 한 유형으로 확장하여 규명하고 있다(Dervin, 1976, 333; 2005, 27). Dervin은 의미형성 이론을 소통 이론으로 확장하기 위해 철학적 전제 2가지를 수정한다.

주체 개념의 변화이다. Dervin은 기존의 정보 개념이 불완전한 관찰자로서의 인간(human as imperfect observer)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정보추구 담론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저마다의 구성방식을 지닌 인간 독자성(human uniquenesses)을 주체의 속성으로 선택한다. 다음으로, 정보 개념의 확장이다. Dervin은 전통적인 대상으로서의 정보(information as thing) 개념에 더하여 Popper(1972)의 지식 개념을 바탕으로 주관적 의미로서의 정보와 의미형성 과정으로서의 정보(information as informing) 개념을 추가적으로 유형화하였다(Dervin, 1976; 1991).

그러나 소통 이론의 한 유형으로서 패러다임 전환과 영역의 확장을 제안했던 의미형성 이론은 결과적으로 주체의 인식론적 해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옹호론자들은 의미형성 이론이 집단보다 개인에 관심을 갖지만 시·공간, 인지, 정서, 권력, 문화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지 단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Tidline, 2005, 114). 그러나 Sarkar et al. (2020)의 연구는 개인의 내적인 정보요구를 수행적 행동의 관찰을 통해 역행해내기 위한 방법론

으로 의미형성 이론을 채택했다. 이처럼 의미형성 이론은 주체가 외적으로 수행하는 문제해결 행위의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의 인지과정을 역행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Dervin의 철학적 전제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인지과정의 구성을 강조하는 인지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다.¹⁾ 의미형성 이론은 철학적 전제에서부터 인식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의미형성 이론은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추구 행위에 설명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Dervin은 의미형성 이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1983년 처음으로 정식화하였는데(Dervin, 2005, 26) 이로 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의 정보추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및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권난주, 이지연, 2022; 이정연, 정은경, 권나현, 2012; Bronstein, 2020; Jang, 2022; Koh, Snead, & Lu, 2019; Lekic, Revier, & Ihadjadene, 2020; Lund & Ma, 2021; Sarkar et al., 2020; Yeon & Lee, 2021).

의미형성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은 의미형성 이론을 특정 집단이나 상황, 맥락에서 구성원의 정보행동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미형성 이론을 소개하고 그 가능성과 이용방안을 안내하거나(노진구, 1998)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정 집단의 정보행동 관찰(Jang, 2022; Lund & Ma, 2021), 난민 등 정보빈곤에 처한 집단의 정보행동 관찰(권난주, 이지연, 2022; Bronstein, 2020; Yeon & Lee, 2021), 전문 영역이나 직업군에서의 정보행동 관찰(이정연, 정은경, 권나현, 2012; Koh, Snead, & Lu, 2019; Lekic, Revier, & Ihadjadene, 2020)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연구들은 의미형성 이론을 수용하여 진행된 연구들이다. 이처럼 의미형성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은 시·공간적 맥락을 함의한 관찰로서 실용적 의미를 가진다. 전술하였듯 Dervin은 의미형성 이론이 개인의 내적 영역부터 대면, 조직,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소통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Dervin, 1992, 277-278). Dervin이 제안한 이론적 가능성에 근거하여 의미형성 이론의 후속연구들은 다양한 실용적 시사점을 제안해왔다.

문제는 Dervin의 이론의 구성에 대한 주장과 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의미형성 이론은 인지적 구성주의를 철학적 전제로 삼고 있다. 구성주의는 주체 개인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형성해내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Dervin(1992)의 주장처럼 개인의 내적 영역 이상의 조직,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에 적용이 가능하

1)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주체가 스스로 지식 또는 의미를 구성한다는 이론이다. 어떠한 객관적인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 정보가 주체 각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각자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 또는 의미화된다고 주장한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를 줄이는 인지적 평형화를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생들이 언어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독립된 각자의 내면적 인지능력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회환경을 강조한다(서진원, 2009).

다면, 인지주체 개인의 다양성이 아니라 집단 단위에서 해당 구성원의 일반적인 공통적 특성을 도출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주체 개인별로 다양한 맥락을 지닌 의미형성 과정을 그 집단의 특정한 속성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인지적 구성주의의 전제인 '인지주체마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의미형성 이론은 주체 개인의 인식론적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Case, 2002; Neill, 1987). 그러나 의미형성 이론은 주체의 내적 작용과 그 내적 작용이 주체 개인마다 서로 다르고 다양함을 강조하는 인지적 구성주의를 전제한 인지과정 중심 이론이다. 따라서 Dervin의 주장처럼 이를 통합하여 집단의 일반화된 특성을 도출하거나 분석하는 적절한 이론적 준거가 될 수는 없다.

의미형성 이론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상황·대상의 정보추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형성 이론이 가진 방법론적 유용성과 별개로, Dervin이 설정한 철학적 전제에 함의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해석을 위해서는 이론의 수립 과정과 개념화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른 정보추구 이론과의 차별점, 정보의 개념을 바탕으로 의미형성 이론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2. 개념적 정의

논의에 앞서 의미형성 이론에 관한 비판적 해석을 전개하는 데에 사용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논리 전개에 사용될 주요 개념어인 이론, 방법론, 정보추구, 정보추구 이론, 소통 이론은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첫째, 이론은 실재에서 사회세계의 현상을 관찰하여 언어로 표현된 상호 관련된 진술의 집합으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론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에 의해 정의되었다.

1) 이론은 관찰 대상이 있고, 그 관찰 대상은 현상이라고 지칭한다. 이론 구축은 설명, 기술, 일반화, 예측, 이해 등 다양한 목적을 두지만 이 목적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이 지칭할 대상이 필요하다. 이 대상은 이론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²⁾ 특정한 분야나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행위의 집합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론 자체, 활동, 행위의 집합을 아울러 현상이라고 지칭한다(Bates, 2005, 2; Case, 2002, 143-145).

2) 이론의 관찰 대상인 현상은 연구자가 실재에서 구분해낸 대상/행위이다. 이 연구는 자연세계의 관찰과 사회세계의 관찰 유형이 다르다고 전제한다(Giddens & Sutton, 2017, 68; Case, 2002, 144). 이 논문에서 다루지는 관찰 대상은 사회세계이다. 관찰 대상으로서의 사회세계에 관한 실재론과 구성주의의 구분이 있다. 실재론은 실재가 접근가능하고 고정되어있어서 현상을 발

2) 이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일 때 그 이론을 메타이론이라고 지칭한다(Bates, 2005, 1). 본고에서는 맥락상 불가피한 사용이 아닌 이상 메타이론을 이론과 구분지어 서술하지 않겠다.

견해였다는 관점, 구성주의는 실재가 불가지론적이고 수정 가능하므로 현상을 구성해냈다는 관점이다(Giddens & Sutton, 2017). 이 구분은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실재에 대한 2가지 관점은 의미형성 이론이 다른 정보추구 이론과 갖는 차이점으로 후술될 것이다.

3) 이론은 언어의 형태로 구성되어 명제·원리·가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Case, 2002). 사회세계의 현상은 자연세계의 현상과 달리 보편적인 정규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Case, 2002). 따라서 사회세계의 현상에 대한 관찰은 관찰을 논리적으로 전달·논의·수정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세계의 현상 관찰은 언어라는 매체를 필요로 한다. 언어를 통해 표현된 명제·원리·가설은 현상의 관찰값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되어있고, 이들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현상에 대해 진술들을 제시했을 때 이 진술의 집합을 이론이라고 칭한다.

4) 이론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방법론을 사용한다(Bates, 2005, 2). 사회과학의 경험연구는 체계적 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해 논증하는 과정을 거친다(Giddens & Sutton, 2017, 67). 이 때 경험연구의 정당성을 증명해주는 것은 체계적 방법의 정당성이며, 적절한 방법론의 채택이 이론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준거가 된다. 따라서 이론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방법론을 사용한다.

둘째, 방법론은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와 논리, 증거 등 사고와 연구 방식을 의미한다(Case, 2002). 따라서 방법론은 이론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적인 이론이다. 방법론은 방법(method)과 구분되며, 이 구분은 이영철(2014)이 명시한 다음의 구분을 따른다. “방법론은 사회적 실재에 대한 사고와 연구 방식을 의미한다. 연구결과의 진리, 객관성 등의 논의를 포함한다. 방법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연구방법 상의 절차를 뜻한다(이영철, 2014, 189).”

셋째, 정보추구는 현상의 하나로, 정보가 결여되어 불확실성·불편함·문제 등의 격차가 발생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유발되는 개인·집단의 다양한 행위를 일컫는다(Case, 2002, 81-82). 정보가 결여되었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불편함·문제 등의 격차는 행동을 유발하는데 이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상태를 정보요구라고 칭한다. 즉 정보추구는 정보요구에 의해 촉발되는 능동적 행동이다. 정보요구에 의해 촉발되는 수동적 행동까지를 포함한 표현으로 정보행동이라는 표현이 있지만(Case, 2002) 본고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넷째, 정보추구 이론은 정보추구라는 현상을 관찰하는 이론을 일컫는다. 이 정의는 앞서 정의된 개념어인 ‘이론’과 ‘정보추구’의 내용에 입각하여 본고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다섯째, 소통 이론은 주체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관찰하는 이론이다(Griffin, 2003, 31). 학자마다 소통(communication)에 대한 개념 정의와 소통 이론이 다루는 현상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소통 이론‘들’이라는 다양한 현상 관찰의 목적은 생활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이나 실천의 사회적 의미를 발굴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관된다(Griffin, 2003, 31). 이 생활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이나 실천은 사회적 의미에서 주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소통 이론은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현상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이론이다.

II. 의미형성 이론 구축의 배경

의미형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형성 이론 구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의미형성 이론은 다른 정보추구 이론과 의미형성 이론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Dervin은 자신의 이론을 “방법론(Dervin, 2005, 26)” 또는 “방법론을 위한 이론(theory for methodology)(Dervin, 2005, 26)”이라고 명명한다. 이론은 현상의 관계를 설명하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은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관찰해야하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현상을 관찰해 그 관계를 밝혀낼지에 대한 이론이 방법론이다(Case, 2002). 즉, Dervin의 ‘방법론을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은 정보추구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추구 현상을 어떻게 ‘관찰’할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Dervin은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을 2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1유형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되는 철학적 전제인 2유형 이론이다. Dervin은 의미형성 이론을 3유형 이론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의미형성 이론을 2개 유형 이론의 형성 과정을 관찰하는 이론으로 규명한다(Dervin, 2005, 25-26). 따라서 의미형성 이론은 이론 구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 동시에, 1유형과 2유형의 이론을 관찰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개념화된다.

Dervin의 이론 구축 목적에서의 핵심은 이론 구축을 현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론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현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설명·기술·일반화·예측·이해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의미형성 이론은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이론을 인정하고 이론을 관찰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설명·기술·일반화·예측·이해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1유형 이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용인함으로써 동시에 다양한 철학적 전제(2유형 이론)를 용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Dervin, 2005, 26). 이 다양한 이론들은 각기 ‘이론 구축’이라는 현상을 관찰하는, 즉 자신의 발생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 새로운 이론으로서 의미형성 이론은 동일한 준거 하에 이론 구축이라는 정보추구 행위를 비교하는 이론이 된다.

이론 구축 과정은 현상의 관찰 과정이다. 의미형성 이론은 이론 구축 과정을 관찰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의미형성 이론은 현상의 관찰 과정을 관찰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방법론은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와 연구방식을 의미하므로, 의미형성 이론은 방법론이다. 따라서 ‘방법론을 위한 이론’이자 ‘방법론’이라는 표현은 단어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현상만 다를 뿐이지 의미형성 이론은 1유형, 2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이론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의미형성 이론은 1유형, 2유형 이론과 다른 3유형의 이론으로 정식화된다. 3유형 이론으로서 다른 정보추구 이론과의 차별화를 위해 Dervin은 관찰 대상을 확장하고, 철학적인 근본 전제를 수정하여 이론의 구성요소를 다변화한다. 이러한 차별화 과정은 의미형성 이론을 정보추구

이론이 아닌 소통 이론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시도는 정보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소통 이론으로서의 의미형성 이론에 대한 비판, 의미형성 이론에 대한 정보 개념의 비판이 진행될 것이다.

Ⅲ. 비판 1: 소통 이론으로서 의미형성 이론

1. 관찰 대상의 구분

의미형성 이론은 정보추구 이론이지만 일반적인 정보추구 이론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설명력을 갖고자 시도한다(Case, 2002, 83).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설명력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정보추구 이론들이 관찰 대상으로 삼은 현상과 Dervin이 관찰 대상으로 삼은 현상이 정보추구와 다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Dervin은 정보과잉으로 인해 변화된 소통을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정보과잉이 가져온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의 발명이 소통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Dervin은 소통 현상 연구자를 결정론자와 상대론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상대론자의 이론이 갖는 조건들을 의미형성 이론의 토대 준거로 삼는다(Dervin, 1976, 324-325).

Dervin에 의하면, 결정론자는 규범적이고 예외가 없는 정답이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정보들 중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변화된 소통 현상을 관찰 대상으로 하는 이론은 시스템은 정보를 수집·축적·검색·전달하는 정보시스템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상대론자는 결정론자의 관점이 고정된 외부 환경을 그대로 수용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주체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임을 주장한다. Dervin은 주체가 가진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소통 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핵심어인 정보의 개념을 3가지로 분화시킨다. 첫째, 객체정보, 둘째, 주관정보, 셋째, 객체정보를 주관정보에 포함시키는 과정정보이다. 결정론자들에 의해서는 정보로 취급되지 않았던 주관정보와 과정정보를 개념들을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서, Dervin은 정보가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대상물임을 주장하였다. 구성물이기 때문에 상대론자의 관점에서 소통 이론이 관심을 가지고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주체의 정보 이해 방식과 원리 창조, 문제해결을 다루는 소통시스템이다(Dervin, 1976, 333).

Dervin이 의미형성 이론의 토대 마련을 위해 소통 이론을 개입시켰으나, 의미형성 이론은 소통 이론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결정론자에 대한 비판과 이론의 대안이 모두 계속 주체의 인지과정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Dervin은 개인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이 구분된다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주체가 외부의 사회적 현실을 개인적 현실 안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미진하다고 지적한다(Dervin, 1976, 332). 후술하겠으나 정보 개념 분화의 장점 또한 정보추구 과정을 외부에서 뭘 받아들이는지가 아니라 (주체의) 내부에서 무엇을 생성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ervin, 1976, 326). Dervin의 진술은 항상 주체의 내적 구성을 강조하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수용이 아니라 내부의 인지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론자들과 상대론자들의 차이는 주체의 인지과정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종합하자면 Dervin의 이론은 소통 이론을 준거로 두고 소통 이론을 2개로 구분하여 구분을 통해 자신의 이론적 차별점을 제시하려 했으나, 주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보다 주체의 인지과정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안하려는 점에 그쳤다. 이 한계는 후술될 철학적 전제와 의미형성 이론의 도식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2. 철학적 전제

Dervin(1991)은 소통 결정론자와 소통 상대론자의 비교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했던 두 논의에서 공통적인 철학적 전제들을 3가지 가정의 형태로 정리하고, 이 가정을 통해 소통 결정론자가 전제하는 주체 개념을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로 압축한다. Dervin은 이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정보의 3가지 가정과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의 철학적 전제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의 철학적 전제	가정
1	(존재론적 특성) 실재는 고정되어있고 인간 주체는 동형의 관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보의 조건) 인간 주체는 실재에 대해 무엇이 실재하는지 진술할 수 있다. (그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2	(인식) 인간 주체의 인식은 선택적이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의 한계) 이러한 진술은 인간 주체의 관찰과 언어 사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방해받거나 제한된다.
3	(선택) 인간 주체의 불완전한 선택적 인식에 의해 발생한 다양성은 도구에 의해 보완된다.	(정보의 다양성) 이러한 진술은 시·공간과 담화에서의 차이와 결부된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다.

출처: Dervin, 1991, 296-297 재구성

첫 번째 철학적 전제는 존재론적 특성이다. 존재론적 특성을 통해서는 정보의 조건이 산출된다. 하나는 정보를 진술하는 인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인간 주체의 진술할 수 있는 대상인 실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실재하는지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재는 고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 주체가 그 실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철학적 전제는 인식에 관한 것이다. 인식을 통해서는 정보의 한계가 산출된다. 인간 주체가 실재를 관찰할 수 있다면 인간 주체의 진술은 항상 동일하게 일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 주체의 인지과정은 존재하는 모든 실재를 한 번에 인식할 수 없고, 특정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과정(selective process)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인지의 불완전성은 인간 주체

라는 종(species)의 인지적 한계 때문에 초래되었다. 이 선택적 인지 과정으로 인해 인간의 진술은 투입(인간 주체의 관찰)과 산출(언어 사용) 2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인간 주체는 불완전한 관찰자라는 명명을 획득한다.

세 번째 철학적 전제는 선택에 관한 것이다. 선택을 통해서는 정보의 다양성이 산출된다. 인간은 모든 것을 불완전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불완전한 관찰을 보완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도구는 고정된 실재를 보다 올바르게 관찰하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의 다음과 같은 진술 차이가 극복될 수 있다. 첫째, 인간 주체마다의 진술의 차이이다. 둘째, 주체가 동일하더라도 시간에 따른 진술의 차이이다. 셋째, 주체와 시간이 동일하더라도 공간에 따른 진술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두 번째 가정과 세 번째 가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불완전한 관찰은 도구에 의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관찰이 수행될 수 있다면, 완전한 관찰 또한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과 세 번째 가정은 병존할 수 없다. 한편 불완전한 관찰이 인간 주체의 종으로서 생물학적 한계이고, 이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도구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구를 통해 획득된 관찰의 결과는 다시 인간 주체에게 인지되고, 그 인간 주체의 인지는 또 다시 선택적이다. 결국 도구를 통해 획득한 완전한 관찰 결과가 인간 주체에게 다시 인지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시 불완전한 관찰이 된다.

따라서 Dervin은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 개념을 제안한다. 이 주체 개념은 ‘인간 독자성’이라고 명명된다. 이 개념은 정보의 3가지 가정을 그대로 용인하되,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 해석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정보의 3가지 가정과 인간 독자성의 철학적 전제

	인간 독자성의 철학적 전제	가정
1	(인식론적 특성) 실재는 고정되어있지 않고 실재의 형상은 인간의 관찰에 따라 구성된다.	(정보의 조건) 인간 주체는 실재에 대해 무엇이 실재하는지 진술할 수 있다. (그것을 정보라고 부른다)
2	(인식) 인간 주체의 인식은 선택적이면서 동시에 구성적이다.	(정보의 한계) 이러한 진술은 인간 주체의 관찰과 언어 사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방해받거나 제한된다.
3	(구성) 정보의 차이는 인간 주체가 인식한 구성의 차이이므로 항상 다양하다.	(정보의 다양성) 이러한 진술은 시·공간과 담화에서의 차이와 결부된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다.

출처: Dervin, 1991, 296-297; 1992, 272 재구성

Dervin은 불완전한 관찰자로서 인간 주체 개념이 가진 한계를 ‘실재를 고정된 것으로 보았다’는 데에 두고, 실재를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실재는 인간 주체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원리(order)로도 결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실재의 형상(picture of reality)은 인간 주체의 관찰에 의해 시·공간·주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인간 주체는 실재에

대해 동형의 관찰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이를 통해 2번째 가정과 3번째 가정의 모순이 해결된다. 인간의 인식은 선택적이어서 모든 관찰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실재가 결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주체의 인식은 실재에서 요소를 선택해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찰은 다양하다. 따라서 시·공간과 주체에 의한 정보의 다양성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보의 본질적인 특성이 된다. 정보는 인간 주체의 수만큼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관찰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된다(Dervin, 1991, 298).

인간 주체의 독자성을 설명하기 위해 Dervin은 실재와 인간 주체의 존재 원리로 불연속성(discontinuities) 개념을 채택한다(Dervin, 1992, 270-271). Dervin은 다음과 같은 언명으로 함축한다. “모든 존재에 불연속성이 있다(It is assumed that there are discontinuities in all existence) (Dervin, 1992, 270).” 불연속성은 실재의 불연속성과 인간 주체의 불연속성으로 구분된다. 첫째, 실재는 특정한 원리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주체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그래서 주체별, 시점별, 공간별 실재는 불연속적이다(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실재의 불연속성은 인간 주체에 의해 형성된다. 인간 주체는 실재에 완전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감각과 실재도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인간이 실재를 관찰하는 과정(인간 감각-마음-언어-메시지)도 불연속적이다(Dervin, 1992, 270).

Dervin은 인간 주체의 관찰에 불연속성 개념을 적용시켜 주체가 시·공간적 맥락에 종속하여 봉착한 불연속성을 격차(gaps)라고 지칭한다(Dervin, 1991, 298). 격차는 주체가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불연속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주체는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내부의 정보를 변화시켜 새로운 질문/관점/자원을 획득해야지만 이 불연속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추구 이론에서의 정보요구 개념이 Dervin의 이론에서는 격차에 해당한다.

정보요구를 격차 개념으로 해석한 학자가 Dervin만은 아니다(Case, 2002, 83). Belkin의 경우에도 정보추구의 동기, 즉 정보요구로서의 격차를 지식의 이상상태(Anomalous State of Knowledge)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Belkin과 Dervin의 격차 개념은 이상의 철학적 전제로 인해 다르게 개념화된다. Belkin의 격차는 불완전한 관찰자로서의 인간 주체에 근거하기 때문에, 격차의 극복은 인간 주체의 책임이 된다. “그는 자신의 정보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알게 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질문자는 결국 “포기하게” 된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이용 가능한 정보자원과 질문자의 동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Case, 2002, 75).” Belkin은 정보요구 극복을 위한 객체정보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 극복은 항상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타협의 과정이다.

그러나 Dervin의 격차는 객체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객체정보를 수용해 주관정보를 수정하는 과정, 즉 의미형성정보가 이 격차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Dervin의 격차는 발신자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그것의 올바른 수신 여부를 따지는 발신자 위주의 격차가 아니라 수신자가

획득한 메시지를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때 발생하는 수신자 위주의 격차이다(Dervin, 1980, 45).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정보의 활용을 고려하는 격차이기 때문에 의미형성 이론은 특정한 정보추구 현상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구축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설명력을 가진 광의의 소통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설명을 비교를 통해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다른 정보추구 이론과 의미형성 이론의 철학적 전제 비교

	다른 정보추구 이론들	의미형성 이론
주체	불완전한 관찰자로서의 인간 주체	인간 독자성
실재	변화불가능(고정됨)	변화가능함(고정되지 않음)
소통발생시점	발신자(정보원)가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발생	수신자가 수용한 정보를 문제 상황에서 사용할 때
인지과정	선택적 과정	구성적 과정
정보의 작동방식	전달	형성
정보 유형	대상으로서의 정보	객체정보 주관정보 의미형성 과정

출처: Dervin, 1976; 1980; 1991; 1992 재구성

철학적 전제의 수정을 통해 의미형성 이론은 기존의 정보추구 이론보다 넓은 관찰 대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관찰 대상이 확대됐다고 해서 의미형성 이론을 소통 이론으로 볼 수는 없다. 소통 이론은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이론이다. 그러나 Dervin이 수정한 철학적 전제에서는 불연속성 개념을 존재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주체마다, 시·공간마다 실재의 구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체마다의 실재 구성이 다르다면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면 실재에 대한 인간의 진술은 투입과 산출 과정에서 항상 방해받거나 제한되기 때문이다(2번째 가정). 그렇다면 인간 주체마다 다른 실재의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교환되는지가 이론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Dervin이 제시한 개념(객체정보)은 의미형성 이론의 구성 전체를 위협한다.

또한, 우리의 관찰대상은 사회세계인데, 그 사회세계에는 다른 주체들도 속해있다. 이로 인해 주체 간의 상호작용은 주체와 실재의 상호작용이 된다. 주체와 주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한 주체에게 다른 주체는 사회세계에 존재하는 실재로서 관찰 대상으로 객체화된다. 그렇다면 주체와 주체는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체가 상대 주체를 관찰해 객체로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의미형성 이론은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인간 주체의 실재 인식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한계점은 의미형성 이론의 구성요소에서 명확해진다.

3. 의미형성 이론의 구성요소

의미형성 이론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화된 도식으로 이루어진 메타포를 활용한다. 이 메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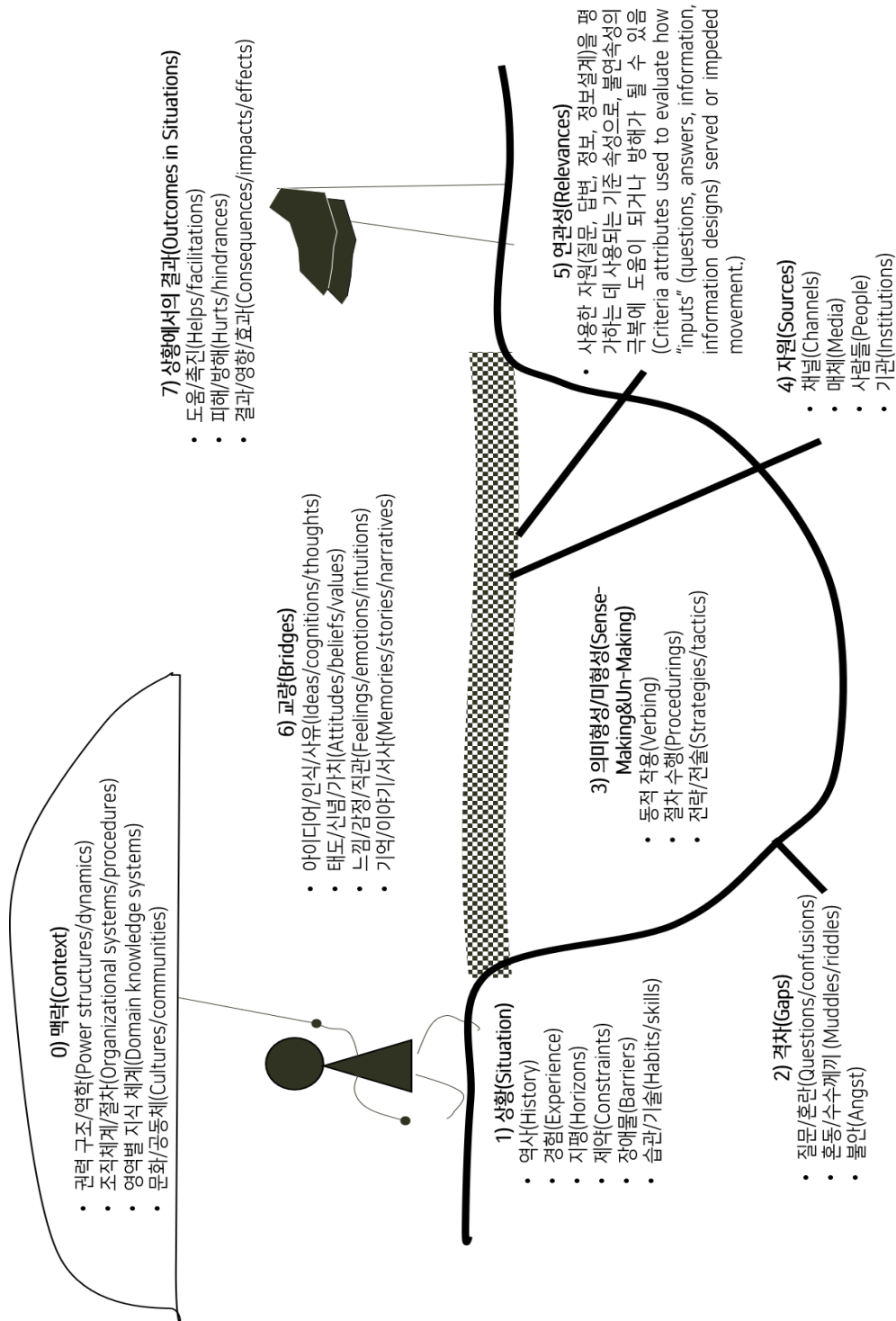
는 특정 상황(situation)에 서 있는 사람이 교량을 만들어 격차를 연결하여 건너편에 도달하고자 하는 메타포로 그려지며 이를 통해 교량(bridges), 상황, 격차, 결과(outcomes)³⁾ 4가지의 구성요소가 도출된다(Dervin, 1992, 277). 이 메타포는 이후 맥락(context), 의미형성/미형성(sense-making&un-making), 자원(sources), 적합성(relevances) 등 4개의 구성요소를 추가해 총 8개의 구성요소를 가진 메타포로 정식화되었다(Foreman-Wernet & Dervin, 2016, 414). <그림 1>은 Foreman-Wernet & Dervin, 2016, 414)의 비유를 번역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포함하여 재구성한 그림이다.

의미형성은 정보추구 현상을 과정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동적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형성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구체적으로는 교량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교량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환경인 맥락을 전제하여 상황, 격차, 의미형성/미형성, 자원, 적합성, 교량, 상황에서의 결과 등 8가지 구성요소가 작동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영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손등을 보이며 검지와 중지로 V표시를 해보였다(Situation). 그런데 그것을 본 영국인 친구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고 나는 친구의 반응이 내가 생각하던 상황과 달라 당황했다(Gaps). 이 상황에서 저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만난 다른 친구(Sources)는 영국에서는 손등을 보이며 낸 V는 모욕적인 제스처이며 비속어에 가깝다고 설명해주었다. 그 친구가 설명해준 내용은 왜 그 친구가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이해하게 해주었다(Relevances). 이를 통해 나는 영국 친구에게는 손동작을 주의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Bridges)(Sense-Making & Un-Making). 다음에 그 영국인 친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손바닥을 보이며 V를 했고, 그 친구는 예상대로 농담을 하며 기뻐해주었다(Outcomes in Situations). 이런 차이는 영국인 친구와 나의 문화적 차이(Context)가 불러온 해프닝이었다.

구성요소는 시나리오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상황은 정보추구가 발생하는 특정한 맥락의 시공간이다. Dervin은 정보추구가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격차로 보았기 때문에 상황은 인간 주체가 격차를 마주하게 되는 특정한 맥락의 시공간이 된다. 둘째, 격차는 이 맥락상의 상황과 주체가 생각했던 상황 사이의 차이이다. 인간 주체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다음 순간의 시·공간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 예측과 실제 다음 순간이 다를 때 인간 주체는 격차를 마주한다. 시나리오에서 ‘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소식을 알리며 반갑게 인사했다. 친구가 기쁘게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마주해 내가 생각하던 상황과 달라 감정적 격차가 발생했다.

3) Dervin(1992)은 과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결과가 아니라 활용/도움(use/help)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연결된 격차 또는 교량이 이미 객체정보를 활용해 형성된 동적 작용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ilson(1999)이 사용한 결과라는 표현으로 수정해 사용하였다. 초기 모델에서 요소를 추가하여 메타포를 수정한 Foreman-Wernet과 Dervin(2016)의 후기 연구에서도 활용/도움 대신 상황에서의 결과(outcomes in situation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1〉 의미형성 메타포

상황의 불연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주체는 외부로부터 다른 정보를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인지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나'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 나 스스로의 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알고 있던 것과 인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형성이라고 하며, 이 과정은 절차적인 전략에 입각한다. 즉, 친구라는 자원을 선택하여 물어보아겠다는 전략을 수립해 이를 수행한다. 나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 즉 자원을 통해 입수한 정보가 내 격차(당황스러움)를 극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고, 이를 통해 영국인 친구에게는 손동작을 주의해야겠다고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 태도는 당황해서(격차) 친구(자원)에게 물어보기(의미형성)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태도(교량)이다. 교량은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동적 작용을 함의하고, 마찬가지로 교량을 만들어 격차를 연결하기 위한 동적 작용은 교량이라는 명사적 대상물을 전제한다. 따라서 교량은 형성 과정인 동시에 형성된 대상물이다(Dervin, 1991, 298).

결과는 의미형성 과정 수행의 결과로 다른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손동작을 주의함으로써 '나'는 내가 예상했던 결과, 친구의 즐거운 반응을 얻었고 여기에서는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통해서는 격차는 극복되고 우리는 다음 순간의 시·공간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결과는 처음 격차를 자각했을 때 인간 주체가 예측했던 상황과 다르다(Dervin, 1992; Wilson, 1999, 253-254). 이상의 과정은 '나'라는 주체가 겪었던 내적인 인지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격차 환경은 V가 드러나는 면이 중요한 영국인 친구와 그렇지 않은 한국인인 나와서 맥락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연속성이었다. 이처럼 맥락은 주체가 격차에 봉착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변수로서 작용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 주체가 격차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격차를 인식함으로써 상황이 발생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인간 주체는 자아에 대한 감각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Dervin, 1992, 279)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위를 취한다. 따라서 어떤 것을 격차로 인식해 어떤 상황에 봉착하고, 어떤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인간 주체의 선택이자 구성에 따라 달려있다. 달리 말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문제로 여기는지조차도 인간 주체의 선택이다.

의미형성은 자원을 이용해 적합성을 검토하여 교량을 형성하는 동적 과정이다. 교량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량을 구성하기 위해 자원, 즉 객체정보가 수용되지만, 문제는 교량을 형성하는 것은 구성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객체정보와 동일하지 않다. Dervin은 대상으로서의 정보 개념이 인간 주체를 고정된 원리 속에서 정답을 추구하는 복제자로 만든다고 지적한다(Dervin, 1991, 304). 따라서 객체정보를 수용해서 변화된 주관정보, 그리고 상황에 처했을 때의 주관정보와 상황에 처한 후의 주관정보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Dervin은 정보 개념을 3가지로 분화한다. 첫째, 기존 개념 그대로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정보로, 실재의 고유한 구성이나 패턴이다.⁴⁾ 둘째, 주체가 형성해 주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주관정보로 인간 주체에 의해 구성된 정보이다. 셋째, 과정을 설명하는 의미형성정보로, 인간 주체가 기존에 몰랐던 것을 아는 과정, 객체정보가 어떻게 주관정보로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절차 또는 행위이다(Case, 2002, 45; Dervin, 1976). Dervin의 관심사는 이 중 주관정보와 의미형성정보이다.

정보의 유형화를 통해 Dervin은 객체정보의 존재를 용인한 상태에서 주관정보, 의미형성정보를 형성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객체정보를 용인함으로써 Dervin의 주관정보와 의미형성정보는 집단 차원에서 생성될 수 없는 주체의 내적 인지과정에 귀속될 뿐이다. 이 때문에 의미형성 이론은 소통 이론으로서의 설명력을 상실한다.

IV. 비판 2: 정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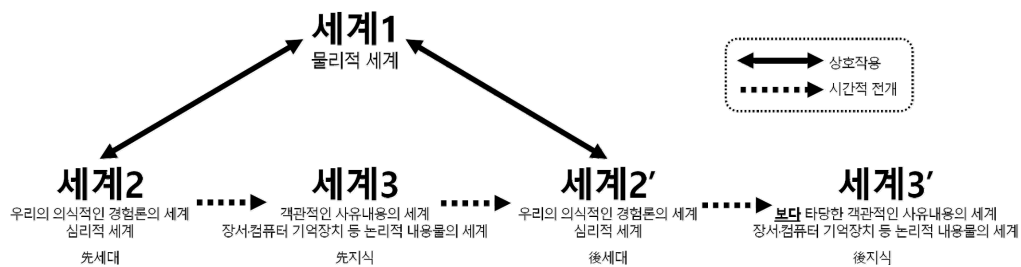
Dervin(1976)의 정보 유형 분류는 Popper(1972)의 세계 삼원론과 유사하며 같은 맥락에 있다(Bates, 2010; Case, 2002, 45; Neill, 1987). Dervin의 정보 유형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Popper의 세계 구성을 함께 검토해야한다. Popper(1972)는 관찰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3개로 구분했다. Popper가 보기에 인식 주체는 유기체로서 생존을 위해 문제해결을 우선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과학적 이론과 법칙들을 발견한다. 이 과학적 이론들은 인식 주체에 의해 생산되었지만 물리적 세계에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들이 인식 주체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한번 과학적 이론과 법칙으로 포착되어 기록되고 나면, 주체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과학적 이론과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 책이나 문서, 컴퓨터 등에서 포착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인식 주체에 의해 발견되고 포착된 과학적 이론과 법칙은 인식 주체의 주관적 인식이나 물리적 실체와 구분되는 세계이다. Popper가 말하는 과학의 목적은 이 객관적 지식 세계의 생산이다(Popper, 1972, 17, 76, 77-80). 이 점에서 Popper는 세계를 다음과 같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물리적 세계인 세계1이다. 둘째, 인간의 의식 세계인 세계2이다. 셋째, 책들, 장서들, 컴퓨터의 기억장치들 등에 포착되어 문제상황에 대한 이론과 논의, 사유를 다루는 세계3이다. 지식의 세계는 세계2와 세계3이다. 세계2는 유기체로서 인식 주체의 타고난 경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주관적 지식, 세계3은 세계2가 세계1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해낸 객관적인 지식이다(Popper, 1972, 117-119).

이 객관적인 지식이란 과학적 문제와 추측, 논의, 논증, 평가는 인간에 의해 생산되고 나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별개의 작동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책이 그 누구에게도 읽히지 않더라도, 그 지식은 발견된 것이므로 인식 주체가 읽건 읽지 않건 존재하고 있다. 즉 세계3은 물리적 세계

4) 객체정보가 실제 자체는 아니다. 객체정보는 실재의 고유한 구성이나 패턴의 표현이기 때문에 실재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세계1)와 의식 세계(세계2)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인간(세계2)의 산물이지만, 세계1이나 경험적인 세계2와는 별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짐을 시사한다(Popper, 1972, 117-119). 시간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Popper의 세계의 시간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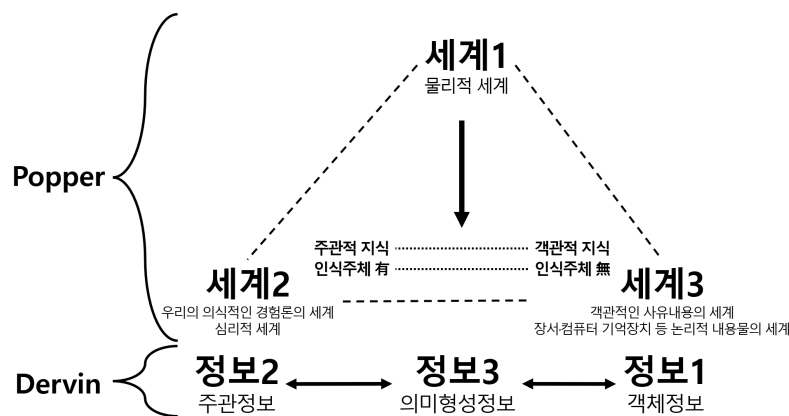
세계1은 실재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존재하는 실재의 작동 원리로서 진리가 있다. 진리는 변화하지 않지만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 과학적 탐구는 우리가 실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수렴한다는 기대에 의거하여 지식을 수정하는 과정이다(Popper, 1972, 76-80). 따라서 물리적 세계는 관찰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세계1을 세계2가 관찰함으로써, 즉 세계1과 세계2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세계3이 생겨났을 것이다. 세계1에 잠재적으로 존재했던 과학적 원리와 현상들은 세계2에 의해 포착되거나 기술되어 객관적 존재로 정식화되고 세계3이 생겨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계3에 새로운 관찰자들, 다음 세대나 후손으로서의 인간인 세계2'가 생겨날 것이다. 세계2'는 세계1을 관찰하며 세계3을 함께 관찰한다. 세계3에서 진리에 가깝다고 증명된 원리들을 반박해 더욱 뛰어난 명제를 제안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새로운 과학적 원리를 제안한다.⁵⁾ 이 새로운 과학적 원리는 세계3'으로 명명된다. 즉, 세계2'와 세계3'은 시간이 경과된 다음 세대 또는 단계의 세계이다.

Dervin의 정보 3유형은 이 세계1, 세계2, 세계3과 연관되지만 등치되지는 않는다. 첫째, 세계1인 물리적 세계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의 진술 대상(실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3이 세계1에 대한 관찰 결과이기 때문에 세계1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세계2는 Dervin이 말하고자 했던 주관정보이다. 셋째, 세계3은 인간의 산물로서 인간에 의해 생산된 대상물이지만, 동시에 인식 주체가 없어도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이다. 실재가 아닌 실재의 형상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Dervin이 말하는 객체정보는 세계3에 해당한다. 넷째, 의미형성정보는 세계3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세계2가 구성되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세계2와 세계3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Neill은 의미형성정보가 세계3의 내면화 과정을 일컫는다고 설명한다(Neill, 1987, 202). Neill의 해석에

5) 이 수정 방식이 Popper의 과학철학의 핵심인 반증가능성의 원리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의거해 Popper(1972)와 Dervin(1976)의 정보 개념을 비교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⁶⁾

세계1은 지식을 다루지 않는 관찰 대상으로서의 실재이다. 세계2와 세계3이 각각 인식 주체를 가져야만 존재하는 주관적 지식, 인식 주체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으로 나뉜다. 이 점에서 Dervin의 주관정보는 세계2의 산물이다. 또한 현실에 대한 진술인 객체정보는 세계3의 내용이다. 과정으로서의 정보인 의미형성정보는 객체정보를 받아들여 주관정보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일컫기 때문에 세계2가 세계3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림 3> Popper의 세계 개념과 Dervin의 정보 개념 비교

이 점에서 의미형성정보는 세계2와 세계3의 사이에 위치하지만 세계2에 속해있는 정보이다. 즉 인지 주체에게 귀속된 정보이다. Popper는 세계2와 세계3을 가르는 기준으로 인지 주체의 유무를 꼽는다(Popper, 1972, 117-118). 세계2는 인지 주체가 가진 앎, 즉 인지 주체가 있어야만 생겨나는 앎이지만, 세계3은 인지 주체가 없어도 존재하는 앎이다. 이 앎은 세계1과는 다르다. 세계3은 인간의 산물이지만, 만들어진 이후에는 만든 자와 관계없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지 주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이한구, 2013, 586). 그런데 의미형성정보는 인지 주체가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인지 주체가 객체정보를 어떻게 주관정보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과정, 행위, 작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정보와 의미형성정보는 모두 세계2, 인지 주체에게 귀속된 정보이다.

이 점으로 인해 의미형성 이론은 세계3을 관찰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객체정보는 인간이 실재를 대상으로 진술한 것이기에 실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성이나 패턴이지만 이 고유한 구성이나 패턴도 인간 주체에 의해서 진술되고 포착된 것으로 명명된다. 즉 주체의 내적 인지과정에 의해 형성된 주관

6) Neill(1987)은 객체정보, 주관정보, 의미형성정보를 Popper가 세계에 번호를 붙인 방식과 동일하게 각각 정보1, 정보2, 정보3이라고 명명했다. <그림 3>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였지만, 혼동을 줄이기 위해 서술에서는 객체정보, 주관정보, 의미형성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정보와 의미형성정보가 진술되고 포착될 때, 비유하자면 생각을 책으로 쓰거나 논문으로 작성할 때 세계2에 의해 세계3에 생겨난다. 즉, 주관정보에서 객체정보로 바뀐다. 그런데 Dervin에게 있어서 객체 정보는 현실에 대한 기술이고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객체정보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즉 의미형성 이론에서는 주관정보와 의미형성정보의 생성, 즉 세계2가 세계3을 어떻게 수용할 지에 대해서만 진술할 뿐, 세계3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림 3>에서 세계2는 세계1의 관찰을 통해 세계3을 발생시킨 이후, 세계1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계3을 관찰하며 세계3을 개선해 나간다. 그러나 세계2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Dervin의 이론은 세계3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Dervin에게 세계3은 변화하건 변화하지 않건 실제의 진술값으로 존재하는 객체정보일 뿐에 다름 아니다.

이 점은 결정적으로 의미형성 이론의 구축 목적을 훼손한다. 의미형성 이론은 자신이 목적한 관찰을 수행할 수 없다. 앞선 II 장에서 전술하였듯 방법론으로서 의미형성 이론은 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그런데 이론이란 Popper의 객관적 지식의 형성을 일컫는다. 즉 세계3을 구성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의미형성 이론 구축의 목적은 어떠한 관찰값이 객관적으로 합의를 얻어 세계3에 포함되는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Dervin이 전제한 정보 개념은 객체정보를 하나의 정보로 지정하고, 주관정보와 의미형성정보에 집중함으로써 세계2만을 이론의 관찰 대상으로 축소시켰다. 따라서 의미형성 이론은 세계3을 관찰 대상으로 하겠다고 목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3을 관찰할 수 없다는 모순에 봉착한다.

즉 주관정보와 의미형성정보는 주체의 내적 영역이고 집단 차원에서는 객체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미형성 이론은 지식의 개인적 형성을 목적하는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이지, 지식의 사회적 형성을 목적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의미형성 이론은 집단 차원의 정보추구 현상을 관찰하는 이론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V. 결 론

의미형성 이론은 다른 정보추구 이론보다 광범위한 지위를 가진다. 이 지위는 Dervin이 다른 정보추구 이론들과 달리 구성주의적 관점을 철학적 전제로 채택하면서 정보추구를 주관적 의미형성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인간 주체의 주관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형성 이론은 정보원을 추구하는 특정한 현상 뿐만이 아니라 개인·집단을 가리지 않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Dervin은 의미형성 이론을 소통 이론의 관점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의미형성 이론은 이론 구축 현상을 관찰하는 이론으로 정식화된다. 의미형성 이론은 방법론으로, 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1유형의 이론 구축 과정과 철학적인 전제를 다루는 2유형의 이론

구축 과정 모두를 관찰할 수 있는 제3유형의 이론이다. 이러한 구축 배경에 입각하여 의미형성 이론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전환을 이루었다. 첫째, 인간을 외부 정보를 수용할 뿐인 불완전한 관찰자가 아니라 독자성을 가진 구성적 행위자로 봄으로써 정보의 구성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를 마련했다. 둘째, 이를 통해 정보추구 현상이라는 관찰 범위를 넓게 확장하여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의미형성 이론은 소통 이론의 관점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수신자 중심의 인지 과정을 탐구하는 절차로서 재구성하려고 했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신자 외부의 정보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수신자 외부에 있는 객체정보의 존재를 용인한다. 이 용인은 결과적으로 의미형성 이론의 구축 배경인 ‘이론 구축 과정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관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Dervin은 Popper(1972)의 세계 개념에 근거해서 정보 개념을 수립하였는데, 이 개념에 의하면 의미형성 이론의 관찰 대상은 세계3(객관적인 사유내용의 세계)이 아니라 세계3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세계2(심리적 세계)가 받아들이는 과정(의미형성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Dervin의 의미형성 이론은 집단 차원에서의 소통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는 이론의 수립 과정에서 모순이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점은 이후 의미형성 이론이 특정 사회집단의 정보추구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근본적인 모순이다.

이러한 접근이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의미형성 이론을 방법론적으로 적용할 때 엄격성을 높임으로써 방법론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미형성 이론은 인지적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개인의 인지과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Dervin은 의미형성 이론이 개인·집단 등 다양한 소통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Dervin, 1992, 278) 이론의 적용에 혼선을 불러왔다. 이러한 혼선으로 인해 의미형성 이론을 적용한 많은 후속연구들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인터뷰해 그 집단에 대한 종합적 양상을 분석해내는 데 집중하였다. 개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단의 정보행동이나 일반적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Dervin이 전제했던 인지적 구성주의 접근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형성 이론은 정보행동에서 개인의 다양한 인지과정을 역산하는 준거틀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의미형성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의미형성 이론이 집단 단위의 일반화나 해결책을 특정하기 위한 방법론이 아님을 논증하였지만, 개인별 내러티브의 관찰에도 의미형성 이론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미형성 이론이 전제하는 구성주의는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나뉜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환경에서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개체임을 강조한다(서진원, 2009). 의미형성 이론을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이론으로 철학적 전제부터 수정할 수 있다면 앞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본고가 구성주의에 입각한 의미형성 이론의 방법론적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난주, 이지연 (2022). 한국 체류 외국인 난민의 정보행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9(1), 351-374.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1.351>
- 노진구 (1998). 이용자 중심 정보서비스와 Sense-making 이론의 적용. 도서관학회지, 28, 447-475.
- 서진원 (2009). 교육방법으로서의 구성주의와 구조주의의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81-92.
- 이영철 (2014). 근거이론의 근거에 대한 음미: 방법론과 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187-214.
- 이정연, 정은경, 권나현 (201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 단계별 문제상황 극복을 위한 정보행동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99-12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099>
- 이한구 (2013). 객관적 지식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in Popper, K. (1972).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이한구, 정연교, 이창환 옮김(2013). 객관적 지식: 진화론적 관점. 서울: 철학과 현실사, 577-595.
- Bates, M. J. (2005). An Introduction to Metatheories, Theories, and Models. In Fisher, K. E., Erdelez, S. & McKechnie, L. eds.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 Medford: New Jersey: Information Today. 1-24.
- Bates, M. J. (2010). Information. In Bates, M J. & Maack, M. N. ed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3rd Ed.). New York: CRC Press, vol. 3, 2347-2360.
- Bronstein, J. (2020). Reframing integration: information marginalization and information resistance among migrant workers. Journal of Documentation, 76(1), 27-48.
<https://doi.org/10.1108/JD-06-2019-0108>
- Case, D. O. (2002). Looking for Information. 사공복희, 윤정옥 공역(2004). 정보추구행태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Dervin, B. (1976). Information: an answer for every question A solution for every problem. Journal of Broadcasting, 20(3), 323-333.
- Dervin, B. (1980). Communication gaps and inequities: moving toward a reconceptualization. in Dervin, B., Foreman-Wernet, L., & Lauterbach, E. (2003). Sense-making Methodology Reader: Selected Writing of Brenda Dervin. Cresskill, N. J. : Hampton Press, 17-46.
- Dervin, B. (1991). Information as non-sense; Information as sense: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connection. in Dervin, B., Foreman-Wernet, L., & Lauterbach, E. (2003). Sense-making Methodology Reader: Selected Writing of Brenda Dervin. Cresskill, N. J. : Hampton Press, 293-308.

- Dervin, B. (1992). From the mind's eye of the user: the sense-making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y. in Dervin, B., Foreman-Wernet, L., & Lauterbach, E. (2003). Sense-making Methodology Reader: Selected Writing of Brenda Dervin. Cresskill, N. J. : Hampton Press, 269-292.
- Dervin, B. (2005). What methodology does to theory: sense-making methodology as exemplar. In Fisher, K. E., Erdelez, S. & McKechnie, L. eds.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 Medford: New Jersey: Information Today. 25-29.
- Foreman-Wernet, L. & Dervin, B. (2016). Everyday encounters with art: comparing expert and novice experiences. Curator The Museum Journal, 59(4), 411-425.
- Giddens, A. & Sutton, P. W. (2017). Essential Concept in Sociology (2nd ed.). 김봉석 옮김(2018).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파주: 동녘.
- Griffin, E. A. (2003).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5th ed.). 김동윤, 오소현 옮김(2012). 첫 눈에 반한 커뮤니케이션 이론 (번역 개정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Jang, S. (2022). Disparities in COVID-19 information sources and knowledge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9), 5198. <https://doi.org/10.3390/ijerph19095198>
- Koh, K., Snead, J. T., & Lu, K. (2019). The processes of maker learning and information behavior in a technology-rich high school clas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0(12), 1395-1412. <https://doi.org/1002/asi.24197>
- Lekic, D., Reviere, A. L., & Ihadjadene, M. (2020). Information behaviour of top managers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units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Information Research, 25(4), paper 884. <https://doi.org/10.47989/irpaper884>
- Lund, B. & Ma, J. (2021). Exploring information seeking of rural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74(1), 54-77. <https://doi.org/10.1108/AJIM-04-2021-0118>
- Neill, S. D. (1987). The dilemma of the subjective in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retrieval. The Journal of Documentation, 43(3), 193-211.
- Popper, K. (1972).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이한구, 정연교, 이창환 옮김(2013). 객관적 지식: 진화론적 관점. 서울: 철학과 현실사.
- Sarkar, S., Mitsui, M., Liu, J., & Shah, Chirag. (2020). Implicit information need as explicit problems, help, and behavioral signals.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 57, 102069. <https://doi.org/10.1016/j.ipm.2019.102069>
- Tidline, Tonyia, J. (2005). Dervin's Sense-Making. In Fisher, K. E., Erdelez, S. & McKechnie, L. eds.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 Medford: New Jersey: Information Today. 113-117.
- Wilson, Thomas, D. (1999)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55(3), 249-270. <https://doi.org/10.1108/EUM0000000007145>
- Yeon, J. & Lee, J. (2021). Employment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behaviour of North Korean refugees. *Information Research*, 26(4). paper 914. <https://doi.org/10.47989/irpaper914>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won, Nan-Ju & Lee, Jee-Yeon (2022). Information behavior of foreign refugees stay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1), 351-374.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1.351>
- Lee, Han-Goo (2013). How do we grow objective knowledge? in Popper, K. (1972).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Lee, Han-Goo., Jung, Yoenkyo & Lee, Chang-Hwan. trans. (2013). Seoul: Chulhak-kwa-Hyunsil, 577-595.
- Lee, Jungyeoun, Chung, Eunkyung, & Kwon, Nahyun (2012). Scientists' information behavior for bridging the gap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the scientific research lifecy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99-12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099>
- Lee, Yung-Chul (2014). Reflecting on the grounds for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d method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8(1), 187-214.
- Noh, Jin-Goo (1998). User-centered information service and application of sense-making theo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447-475.
- Suh, Jin-Won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ructivism and the structuralism as the educational metho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81-92.